

# 環境 Designer 養成의 必要性

姜 健 熙 — 홍익대학교교수 / 본지편집위원

自然生態系の 破壞가 매스컴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環境의 汚染 등이 그 要因임에 틀림이 없다. 이로 인하여 人間은 여러 方面으로 災害를 입고 있다. 또한 도시의 Sky-Line이 어떻게 都市美觀이 어찌되었다는 등의 生活上 편리하지 못한 現實이 많은 점에서 指摘되고 있다. 여기에서 環境이란 우리 人間의 生活母胎로서 그것의 變化가, 또한 惡化가 우리 人間의 변화이자 惡化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環境保存의 總體的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도 심각히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이 해결점은 環境의 效率의 이용과 전해 내려오는 自然을 保護·保存·育成하는 것이 現在를 이룩해가는 우리의 使命이자 課題인 것이다.

現在 여러 分野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축·建設活動·都市開發·造景 등, 專門分野로서 關連은 있으나 綜合을 시키지 못하여 결국 모두가 散發的인 형태로서 기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奇型的인 成長의 부분 部分을 統制·制御하여 정상적인 脈絡을 이루는 그런 能力을 現實은 요청하고 있다. 즉 그 能力이란 建築·都市計劃·造景·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綜合한 Total Design을 다루는 環境Designer의 다수 輩出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人間環境을 이해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은 環境의 機能, 環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變數, 變數의 相互關係, 기능과 變數와의 關係, 기능의 選擇 등을 명확히 하는 일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科學은 一連의 事實이 아니라 自然의 事實에 秩序를 주어, 그것에 의하여 그것들의 사실에 統一과 理解可能性을 주는 하나의 方法이다』라고 한 Jacob Bronowski의 말은 環境Design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科學의 一般論的인 解析이나 分類에 의해서만 環境이 理解될 수 없으며, 보다 넓고 높은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環境

Design의 対象이 人間과 또한 그의 모든 活動영역에 귀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當然하며, 이는 人類歷史의 發展段階를 보면 더욱 그 事實이 분명해진다. 人間과 環境과의 相互作用은 두가지의 과정이 있다. 어느 것을 살펴 보아도 環境의 形式은 사람들의 心理的 特性에 의하여 틀이 잡혀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關連해서 環境의 문제는 여러가지 形의 相互作用을 돕기도 하며, 또한 속박하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環境Design의 궁극적인 목표는 適應이 아닌, 調和인 것이다. 人間은 어떤 環境에 대해서도 적응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人間들은 좋지 못한 條件에 적응한 것에 대한 結果를, 後에는 어떠한 形態로든 받게 되고, 그것은 人間價値의 退廢라는 形態로 나타나게 되었다. 파괴화된 환경은 더럽혀져 추하고 非人間的이어서, 경제성장이나 정치·권력과도 兩立하여 이들 環境은 人間生活의 肉體的·정신적 측면을 파괴한다. 有機體의 生命과는 兩立하지만 人間의 限界를 파괴하는 따위의 環境에 대하여 人間이 적응력을 갖는다는 것은 Community計劃으로는 곤란한 問題로 提起된다. 그러나 人間이 더욱 필요로 하는 것, 環境Design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物質的 要因이 아니라, 人間生活 維持를 위한 Privacy·獨立·靜의분위기, 그리고 Open Space에서 欲求를 滿足시키는 일이 곧 可能的인 環境인 것이다. 이것은 장식품도 아니고 사치품도 아니며 生物學的으로 眞實한 필수적인 것이다.

人間의 肉體를 유지시키기 위한 산업을 확대시키는 Energy源이나, 深刻한 資源부족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훨씬 以前에 生物學的 必需品의 供給을 위한 環境Design의 역할은 매우 의미 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專門家로서의 環境Designer의 必要性이 眞實히 要求된다. 環境Desi-

gner는 社會에서의 저널리스트는 아니며, 다만 모든 것을 검토·分析·指揮할 수 있는 Conductor이어야 한다.

環境Design은 社會的 學問을 意味하며, 더욱 넓은 면에 適應하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環境Design이란, 時代에 있어서의 새로운 概念, 새로운 思想 및 社會體系로의 어프로치인 것이다.

環境Designer의 役割과 意味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계획과정은 多樣한 關心을 統合하는 努力으로 考慮되어야 하며, 여러 形態의 사람들과 集團의 表現에 나타난, 또 숨겨진 關心의 雙方을 事實에 立脚하여 分析해야만 한다. 또한 計劃過程中 權力의 基礎를 開發하는 方法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파괴나 再建이나 확장을 意味하는 상황에서 「活性劑의 混合」에 넣는 壓力이나 說得의 여러 形態를 鑑定하는 技術을 발달시켜야만 하며, 여러가지 側面에서 計劃을 透視하는 많은 전문가들 意識으로 開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實際로 環境Designer란 일을 하는 能力을 가지며, 一定한 目的을 갖는 組織을 經營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環境Designer는 環境의 변모를 투철히 認識하고 人造環境으로서의 建築을 알고 그 속성의 인식에서 出發한 건축적 概念을 一般化하여, 거기서 다시 새로운 環境을 造成해야 하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들어 낸 장소가 그 特異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認識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人間은 그의 運命을 책임지고 選擇하는 特權을 가지며, 이것은 人間條件 가운데 가장 高貴하고 Unique한 속성일 것이다. 이러한 人間의 環境을 Design하는 것은 人間의 또다른 特權이며, 또한 特權이다. 이것을 달성하는데 Conductor의 역할을 하는 環境Designer의 必要性은 곧 自然保護의 解決이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친 逆說은 아니리라 생각된다. (\* )